WEDBUSH ×

Industry Note

2025년 11월 20일 | Global Equity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Nvidia의 '역대급' 실적: AI 버블이 뭐지?
- Another Monster Quarter from Godfather of AI Jensen and Nvidia: AI Bubble Who?

견조한 실적과 가이던스가 이끄는 강한 서프라이즈. AI 기술주 투자심리 회복 전망

최근 몇 주간 AI 버블 우려가 확산되며 기술주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Nvidia의 견조한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시장과 기술주 섹터의 투자심리를 신속하게 회복시킬 강한 모멘텀이 확인되었다. Nvidia의 총 매출은 월가 전망치인 550억 달러를 상회하는 570억 달러를 기록했고, EPS 역시 1.30달러로 또 한 번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무엇보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하여 시장 예상치(617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650억 달러가 제시된 부분이, Nvidia와 AI 혁명에 대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 낼 핵심 촉매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데이터센터 매출이 전망치를 20억 달러 초과하며, 최근 한 달간 제기된 비관론과 달리 초기 국면에 놓여있는 AI 산업의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강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이번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중국 시장의 수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을 통해 Nvidia가 차세대 칩을 다시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될 시점은 2026년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가이던스나 시장 전망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Blackwell과 Rubin의 견고한 수요. 중장기 AI 사이클의 초기 모멘텀 재확인

컨퍼런스콜 코멘트들을 통해 확인된 Blackwell 수요와 Rubin 아키텍처의 구축·배포·램프업 관련 내용들은, 최근의 우려들을 일부 상쇄하는 긍정적인 내용들로써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컨퍼런스 콜 이후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겠지만, 이번 Nvidia의 실적과 가이던스는 연말까지 기술주 상승 흐름을 다시 점화할 만큼 강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것이 당사(Wedbush)의 견해이며, 이번 결과는 AI 혁명 논리를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여전히 AI 사이클이 '9회말'에 가까운 막바지 국면이 아니라 '3회초' 단계에 있는, 중장기 사이클의 초기 국면이라는 시각을 유지한다.

이번 호실적은 Microsoft, Google, Amazon, Oracle 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뿐 아니라 Palantir와 Oracle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에도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데이터 포인트가 될 것이다. AMD, TSMC, ASML 등 반도체 종목군을 중심으로 한 매크로 반도체 트레이드도 이미 탄력이 붙은 상태이며,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면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ompliance Notice

본 리포트는 Wedbush 사의 Analyst Daniel Ives가 작성한 보고서('Another Monster Quarter from Godfather of AI Jensen and Nvidia: AI Bubble Who?' 11월 19일)를 번역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Wedbush의 투자의견이 반영된 리포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alyst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전종훈 jonghoonjeo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미국 Wedbush사의 리서치 자료를 기초로 하나증권이 AI 번역 시스템을 함께 활용하여 국문 재작성 프로세스를 거친 후 발간한 리포트 입니다. Wedbush사와 하나증권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박승진, 전종훈)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1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박승진, 전종훈)는 2025년 11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